

저스트절크(Just Jerk)



– 'Just Jerk' 탄생배경

저스트절크(Just Jerk)는 2010년 창단된 팀으로 Young J(성영재)와 그의 친구 최준호를 필두로 2011, 2012년 오디션을 거쳐 저스트 절크 오리지널을 꾸리게 되며 리더 Young J 외 12명의 멤버로 구성되어있다.

Just Jerk Crew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팀으로 국내와 해외를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들이다.

– 'Just Jerk' 의미

팀명은 리더 Young J 가 좋아하는 댄서 '부갈루 샘(Boogalo Sam)'의 인터뷰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갈로 샘이 팝핀을 만들 때 '절크 스타일'을 응용했다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Jerk의 사전적 의미는 '바보, 얼간이, 빠르게 움직이다, 핵 낚아챌다'로, 이 복합적인 의미가 춤밖에 모르고, 춤으로만 승부를 보는 팀과 닮았다고 느꼈기에 '이거다!' 싶었다고 했다. 여기에 저스트(Just)를 붙여 그냥 바보라는 뜻을 담았지만 저스트절크(Just Jerk)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팀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Young J가 고민할 때마다 M.joon이 팀명에 대한 확신을 주곤 했다.

물론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현지 사람들의 반응에 부딪혀야만 했고 '저스트절크' 라고 소개를 할 때마다 비웃음을 샀다. 그럴 때마다 ' 오히려 바보라는 이름을 역이용해서 그들의 뇌리에 남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이 작전은 보란 듯이 성공했다. 이름만 듣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고 나서 기립박수는 물론 열성팬이 되었다. 그들에 대한 입소문도 빠르게 날 수 있었고 이제는 저스트절크라는 이름에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 'Just Jerk' Urban Style

저스트절크의 춤은 한번쯤 본 것 같지만, 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준다. 그들이 구사하고있는 춤은 '어반(Urban)스타일'이다. 어반 스타일이란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와 춤을 응용해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드는 것으로 쉽게 말해 복싱, 주짓수와 같은 여러 가지 격투기술이 모두 응용되는 UFC처럼 여러장르의 춤의 기술들을 가져다 하나의 안무 퍼포먼스로 만드는 것이 어반 스타일인 것이다. 따라서 어반 스타일을 춤의 한 장르로서 접근하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본인이 하는 것에 나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을 했음을 느낄 수 있다.

2014년, Feedback competition 퍼포먼스 대회 국내 최초 우승

2014년, 한국 얼반댄스팀 최초 아시아대회 Astro battle ground champion 우승

2016년, 미국에서 열린 가장 권위있는 국제 대회 중 하나인 'BODY ROCK'에서 한국팀 최초 1위 (현재 유튜브 조회수 1280만)

2017년, America's Got Talent 시즌 12 쿼터파이널 진출

2017년, 댄스팀 최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

2018년, 코칭으로 참여한 KBS2 댄싱하이팀 저스트절크 우승

2018년, 국회주관 한류대상 시상식 '공연예술부문' 수상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Show6 'Wish Fire' 단독 공연

박 효 신(朴孝信)



한국의 가수 중 가창력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가수 중 한 명인 박효신은 데뷔 당시 18살의 나이에 돌 불구하고 풍부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정진하여 노래 잘하는 신인가수를 넘어 최정상급 가수 중 한명으로 거듭난 가수이다.

데뷔 전 박효신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부르는 걸 좋아했을 뿐 가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며 외계인 같은 존재라 생각했을 정도로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학교에서 개최한 가요제에 나갔다가 대상을 받은 후로 자신의 노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더 알고 싶어서 여러 가요제에 참가하게 되었고 고1 재학 중 부천 청소년 가요제에서 이기찬의 Please로 대상, YMCA 청소년 가요제, 제물포 가요제 등 대회에서도 수상했다.

뛰어난 재능덕에 고1때 쉽게 한 음반기획사에 들어갔다. 계약없이 8~9 개월을 보내고 1집을 준비했지만 소속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된다. 문 닫은 소속사에서 다른 기획사를 소개 시켜줬고 오디션을 합격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장삿속이 보이는 이상한 요구를 하여 계약도 안한 상태라 나가겠다고 했더니 어느날 5천만원을 갚으라고 옥박질렀다고 한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던 박효신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고 이러한 상처로 인해 가수의 꿈을 접은 박효신은 고2때 한 작곡가 형의 설득으로 한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속사가 바로 신촌뮤직이었다.

데뷔 후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지만 결정적으로 당시 인기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인 '이소라의 프로포즈' 출연을 계기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1999년 12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앨범 '해줄 수 없는 일'이 약 44만 장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2000년 음반 판매량 15위를 기록했다. 타이틀곡이었던 '해줄 수 없는 일'에 이어 후속 활동곡 '바보'도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골든디스크 시상식 신인상, 인터넷 뮤직 어워드 신인상 부문 1위를 수상했다.

다른 가수들에게 리메이크가 많이 된 앨범으로 박화요비가 리메이크 한 '바보'는 본래 같은 소속사였던 박화요비가 부르려 했던 곡으로 박효신에게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보했고, 그 후 4년후에 박화요비 4집 앨범에 실렸다.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권인하도 2014년 자신의 6집에 수록곡으로 '바보'를 리메이크 했는데 박효신이 바보를 녹음 할때 직접 듣고 "고3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재는 천재야"라며 감탄했었다고 한다.

2013년에 시작한 뮤지컬 엘리자벳과 2014년 모차르트!, 2015년 팬텀에서도 자신이 출연하는 전회 전석을 매진 시킬 정도. 2016년 팬텀 공연에서도 서울 공연 출연 회차 50회 전석을 매진 시키며 8만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5년 국내 최대 뮤지컬 큐레이션 커뮤니티 '뮤지컬코리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 뮤지컬 어워드 남자 배우 부문 2위를 하기도 했다. 박효신은 뮤지컬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으며 콘서트에서도 자신이 연기한 뮤지컬 넘버를 무대로 구성할 정도다.

패리스 고블(Parris Goebel)



패리스 고블 (parris goebel)은 1991년 10월 29일 뉴질랜드 출신의 안무가, 댄서, 가수, 감독, 배우이다.

패리스 고블은 폴리스웍(Polyswagg)으로 알려진 댄스 스타일로 파워풀한 안무속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감정들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폴리스웍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패리스 고블이며, 그가 이끄는 리퀘스트 댄스 크루 (ReQuest Dance Crew)와 로얄패밀리(The Royal Family)는 그 개념을 제대로 보여준다.

어린 나이에 댄스에 관심이 많아 10살때부터 힙합을 배우면서 댄스를 시작했고, 15세가 되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리퀘스트 댄스 크루 (ReQuest Dance Crew) 를 결성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Justin Bieber, Rhianna, Janet Jackson, Jenifer Lopez, Nicki Minaj와 함께 작업을 해왔으며 한국 아티스트로는 BIGBANG, 2NE1, iKon, GDragon, Taeyang, Black Pink, 4MINUTE 와 함께 작업을 해왔다.

패리스 고블과 KPOP의 인연은 꽤 깊다. 특히 YG엔터 소속 뮤지션과 여러번 호흡을 맞추어 좋은 평을 받았으며 빅뱅의 노래 '뱅뱅뱅', 2014년 발매된 GD X 태양의 노래 'GOOD BOY'의 안무 역시 패리스 고블의 작품이다. 분명 힙합에서 자주 보던 동작들이데도, 디테일에 섬세하게 변화를 준 덕에 고급스러운 춤이 완성되었다.

단순히 댄스만 잘하는 안무가라기보다 기획, 연출, 영상편집 등 모든 파트에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녀는 저스틴 비버(Justin Biber)의 'Sorry'의 뮤직비디오에 참여 하였는데, 이 영상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AMA '올해의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하였다.

힙합이 주류가 된 만큼 패리스 고블의 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저스틴 비버, 니키 미나즈, 자넷 잭슨 등 최정상에 오른 팝스타들의 애정을 한몸에 받는다. 수많은 힙합 댄서 중에 패리스 고블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녀는 '힙합과 댄스신에서 활동하는 여성'으로서 깊게 고민하고, 고정관념이나 기존 인식에 함몰되지 않았다.

패리스 고블은 자신이 해낸 것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춤추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며 전사에 가까울 만큼 독보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